



LA 관광청 한국 사무소 김지현 소장이 추천하는

Cafe del Rey

LA 관광청 한국 사무소 김지현 소장이 LA에 출장 갈 때마다 긴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비밀 장소가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아늑하고 편안한 카페 델 레이로의 초대.

● 홍보대행사 KPR에 입사하면서 LA 관광청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 LA 관광청 한국 사무소 김지현 소장. 업무가 업무인 터라 LA를 자주 찾는다는 그녀는 10시간이나 되는 여행 피로 해소법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찾는다.

“정심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쯤 LA에 도착해요. 배가고프지는 않지만 안 먹고 지나가기에는 조금 출출하죠. 이럴 때 생각나는 곳이 바로 카페 델 레이예요. 마리나 델 레이 내에 있는 이곳은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어 가까울 뿐 아니라 창밖 풍경이 정말 근사하죠. 이곳에 있으면 마치 긴 비행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위치한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카페 델 레이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다 쪽으로 탁 트인 풍류라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으면 창 너머로 요트 선착장이 보이고, 그 뒤로 푸른 바다와 하늘이 펼쳐진다. 이런 경치를 바라보며 레모네이드와 아이스티를 반반 섞은 달콤쌉싸래한 아놀드 파이를 마시다 보면 업무차 들른 출장인데도 여행

처럼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김지현 소장은 이런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좋아 LA에 갈 때면 매번 카페 델 레이에 들른다.

“아시아와 지중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 델 레이에서는 해산물

부터 육류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고, 주말 브런치까지 갖추고 있어요. 요트를 빌려 바다에 나가는 등 여유로운 하루를 즐기기에 제격이죠.”

김지현 소장이 이곳에서 가장 즐겨 먹는 요리는 단저네 스크램 케이크와 오리엔탈 그릴드 치킨 샐러드, 스위트소이 그릴드 행거 스테이크. 단저네스 계살 케이크는 그레이프루프트가 아보카도와 어우러져 맛이 풍성하고, 오리엔탈 그릴드 치킨 샐러드는 바삭한 튀김에 신선한 야채와 간장소스를 곁들여 식사가 될 정도로 푸짐하다. 가격은 모두 13달러. 스위트소이 그릴드 행거 스테이크는 연한 고기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소스가 함께 나와 매번 감탄하며 먹게 된다고. 맛있는 요리를 먹은 다음에는 라즈베리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초콜릿 리마 케이크를 주문한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데커레이션되어 나오는 이 디저트는 보기만큼 달지 않아 먹기 좋다.

“카페 델 레이는 식량이 지는 저녁에 더욱 로맨틱한 곳이죠.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저켓 서베이) 에서 마리나 델 레이 레스토랑 중 최고로 꼽혔고요. ‘특별한 날 또는 손님 을 데리가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항구 도시 마리나 델 레이가 조용하고 깨끗해 여행자뿐 아니라 LA 현지민도 즐겨 찾는 휴양지라고 소개하면서, 근사한 식사와 함께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원한다면 LA 관광청 웹사이트(www.seemyLA.or.kr)를 방문해 볼 것을 권했다. ■ 에디터 윤은정

주소 4451 Admiralty Way,
Marina del Rey, CA 90292
전화 (714) 310-823 6395

